

상설행자교육원·선학연수원 설립 급선무

조계종 교육원 '승가교육' 제6집서 지난 10년 평가

1994년 종단 개혁으로 출범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전통과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최상의 승가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인가'를 화두로 출범한 교육원이 지난 10년간을 정리하고 이후 과제를 점검했다.

교육원은 최근 발간한 <승가교육> 제6집에서 '교육원 10년의 사업보고 및 총평'을 통해 기초(행자)교육의 경우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을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봤다. 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뛰어넘어 '어떻게'까지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획과 종교적 경쟁력 확보에 관심이 되는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종단 내 유일한 연구소인 불학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특히 연수교육과 관련, 현장 스님들이 원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앞서가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중앙의 소집교육에서 자발적이며 소규모 단위의 현장교육 중심으로,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체험과 실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수교육 정책 기초가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봤다.

램의 시대적 변화와 요구 반영도를 측정한 결과, 약 55%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보적 평가는 32%, 부정적 평가는 13%로 확인이나 승합 10년 미만에 속하는 젊은 스님 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연수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이론과 지식 중심의 교육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 △전문성을 갖춘 교수사 부족 △연수 시설의 결여 순으로 꼽았다.

간화선 대중화 방안 연구 확대 연수 프로그램 '전문화'도 필요

기본교육과정 과정은 '공통 교과목 도입과 시행'이다.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 등 다양한 성격의 교육기관에서 최소한의 공통 교과목을 시행해 기본교육과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심화를 통한 수행가공 진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특수학교 등의 교육기관 증설도 필요하며 학원, 율원에 이어 '선학연수원 설립' 추진도 과제로 삼았다.

종단 차원의 교차자 자격 인정과 임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 지급 등 신분 보장을 통한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단 수행체계 연구와 간화선 대중화 방안 연구는 종단 정체성

뿐만 아니라 수요자(교육대상)의 교육 요구에 기초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으로서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연수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서 실시한 각종 연수에 참여한 스님과 중앙종무기과 및 각종 교육기관 교역직 스님, 강원 확인 등 총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도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수 프로그

램의 시대적 변화와 요구 반영도를 측정한 결과, 약 55%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보적 평가는 32%, 부정적 평가는 13%로 확인이나 승합 10년 미만에 속하는 젊은 스님 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연수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이론과 지식 중심의 교육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 △전문성을 갖춘 교수사 부족 △연수 시설의 결여 순으로 꼽았다.

연수교육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프로 및 신도교육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설법 및 의사소통 △참선 등 제반 수행 △사찰관리 및 종무행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스님들이 긍정적(78%)으로 생각했지만, 약 30% 정도의 스님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했다.

인터넷 연수교육 참여 욕구를 묻는 질문에도 60% 정도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향후 연수교육 방향과 기초에 대해서는 △프로, 문화, 사회, 복지 영역 확대 △체계적이고 질 높은 연수과정 개발 △소규모 현장 위주의 교육 △강의, 토론, 체험의 조화 △전문 교수사 확보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선 교육의 확대 강화 △자세, 지식, 기술의 조화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5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7대 종단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아름다운 선거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최근덕 성공관, 이해정 원불교 교정원장, 손지열 선관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광도 천도교 교령,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창진 천주교 교회사무처장, 조교간 대화위원회 총무. 사진=박봉영 기자

"5·31선거 국민통합 계기로"

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 호소문 발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는 5·31 지방선거를 앞

두고 5월 9일 '화합과 축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5·31 지방선거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정호 신임시민사회수석 지관스님 예방

청와대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이 신임인사차 5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그곳에서 수십년동안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처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수석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정책

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스님 문제 '각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헌법 스님 자격 문제와 관련해 참여불교재가 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제기한 심판이 '각하'됐다.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재)는 5월 9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7차 회의를 열고 교단자정센터가 제기한 '심판청구 요청에 대한 적격여부의

남여 국민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사회발전의 중요한 기회"라며 "국가 내외적으로 막중한 정세속에서 민족적 단합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만물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출발선 지도자와 지역발전 위한 정책 만들기 동참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국가회합 등을 제안했다. 앞서 7대 종교지도자들은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봉영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촉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44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월 11일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개최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참석을 응낙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륵선종 창종 내달 원주 옹화사서 법회

대한민국불교 미륵선종이 6월 창종된다. 미륵선종 덕산 총무원장은 중국 상해 옹화고사 조성 방장 스님을 명예종장으로 추대하며, 원주 옹화사에 총무원을 건립해 창종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륵선종은 6월말 원주 옹화사에서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태국, 네팔, 미국 등 세계 7개국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세계평화기원 대법회와 창종기념법회를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5월 11일 공동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공동기도회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김포 옹화사 주지 지관 스님, 문규원 신부, 정상덕 교무, 백종욱 목사 등 4대 종단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며, 군은 즉각 철수하라"는 대정부 촉구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기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5월 5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정계 주요 인사들과 각 정당 대표들의 참석이 이어졌다. 이날 조계사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김병준 청와대보좌관, 권영기 2군사령관, 달린트 김용림 등이 참석했다. 고건 전 총리도 같은 날 서울 성북동 김상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법정 스님과 합미를 나눴다. (사진 오른쪽부터 법정 스님, 고건 전 총리 부부) 사진=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일 편집국장: 위영란 인쇄인: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파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고종 봉원사 주지 환우스님 21일 취임식
 태고종 봉원사는 5월 21일 오전 11시 환우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재 시연과 운산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靑昊堂 兩翼大禪師 永訣 · 茶毘式 봉행에 대한 인사 말씀

歸依 三寶 하옵고,
 지난 5월 6일 涅槃하신 靑昊堂 兩翼大禪師의 永訣式 및 茶毘式을 5월 10일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큰 스님들과 제망의 여러 스님들 그리고 사부 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헤량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靑昊堂 兩翼大禪師 49재 일정			
49재	일시	장소	연락처
초재	5월 12일 (음 4월 15일) 오전 10시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2재	5월 19일 (음 4월 22일) 오전 10시	성암사	051)635-3744
3재	5월 26일 (음 4월 29일) 오전 10시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4재	6월 2일 (음 5월 7일) 오전 10시	대원사 (영도)	051)403-9695
5재	6월 9일 (음 5월 14일) 오전 10시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6재	6월 16일 (음 5월 21일) 오전 10시	불승사	052)254-5127, 2427
7재	6월 23일 (음 5월 28일) 오전 10시	범어사	051)508-3122

※문의 :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5, 3636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梵魚寺 元老 靑昊堂 兩翼大禪師 山中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大成 · 護喪 興教 · 門徒代表 定慶